



“딩동, 배달 왔어요”...강진군 배달 앱 운영

치킨·분식 등 8개 업종 40점포 등록
점포별 메뉴사진·가격 정보 게시
현금·카드·상품권 결제 후불제 방식
동백오일 등 특산품 쇼핑도 가능

강진군은 강진읍내 배달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강진배달' 앱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진군은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 배달 음식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공공배달앱 운영을 시작했다. 앱에는 치킨, 카페·디저트, 한식, 분식 등 8개 업종 40여 개 점포가 등록돼 있다. 점포별 메뉴 사진과 가격 정보가 게시돼 있어 편리하게 음식을 주문할 수 있다. 결제는 현금, 카드, 상품권, 제로페이로 직접 지

불하는 후불 결제 방식이다. 앱에서는 음식 주문뿐만 아니라 동백오일, 황칠전액 등 강진군 특산품 쇼핑도 가능하다. 이준범 강진군 일자리창출과장은 “올해 연말까지 배달 앱을 홍보해 가맹업체를 100곳으로 늘릴 계획”이라며 “소상공인·소비자의 부담을 줄여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나주지역 청년사업가 9명 1억여치 살균소독제 기부



나주지역 청년 사업가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억여치 살균소독제를 기부해 화제다. 나주시는 지역 청년사업가 9명이 코로나19 방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위한 살균소독제 6700개를 기탁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 어려운 경기 여건 속에서 기부에 동참한 업체(대표)는 거북건설(이길홍), 나주가설재(강형용), ㈜대한식품(한윤경), 대신기업(최영길), ㈜동양 콘크리트(한병채), ㈜신우철강(김현식), ㈜제이디(양재열), 혁신RC300볼링장(최승규), 김도근 법률사무소(김도근) 등 9개 업체다. 최영길 대신기업 대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거리두기 조치와 휴업 등으로 지역 상권의 경영 악화와 영업 손실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청년사업가들이 힘을 모았다”고 말했다. 나주시는 이번 청년사업가들의 요청에 따라 소독물품을 지역 내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장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나눠줄 계획이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나주시 '호남 중심도시 실현' 내년 시책 103건 발굴

온라인 주민학교 등 코로나 시대 선제 대응...시 승격 40주년 사업도

나주시가 '시(市) 승격 40주년'을 앞두고 민선 7기 '호남의 중심도시' 실현을 위한 내년도 신규시책을 발표했다. 22일 나주시에 따르면 전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강인규 시장 주재로 '2021년 국·소·부서별 신규시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33개 부서에서 발굴한 총 103건의 신규시책 추진계획과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행정수요 변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에 중점을 둔 시책들이 주목받았다. 주요 시책으로는 ▲시민과의 모바일 연택트 대화 ▲온라인 주민자치학교 개설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소셜캠퍼스 온' 유치 ▲공영주차장 스마트화 IOT(사물인터넷) 구축 ▲노인요양시설 비대면 면회시스템 구축 ▲비대면 판로 지원 '디지털 매니저' 사업 ▲로컬푸드 무인 판매대 시범 설치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제적 대응을 위한 '비대면·온라인' 및 '디지털 뉴딜'과 관련된 다수 시책이 발표됐다. 또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으로 ▲걱정말아요 그대! 안심터치 스마트링 사업 ▲학교 주변 자녀안심 열로우가든 조성 ▲여성 안심 귀갓길 환경 개선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실버운전자 마크 제작·배부 등이 제시됐다. 내년 시 승격 40주년을 앞두고 추진하는 ▲나주의 삶을 기록하는 아카이브(Archives) 건립 ▲시 승격 40주년 기념 시정기록 전시회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마한역사유적(왕궁터) 발굴조사 ▲학생운동길 역사문화거리 조성 ▲옛 구진포 터널 관광 자원화 사업 등도 눈길을 끌었다. 나주시는 사업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소요예산의 적정성 등 신규시책 검토 작업을



지난 21일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강인규 시장 주재로 '2021년 신규시책 보고회'가 열렸다. <나주시 제공>

거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재정 확충을 위한 국가 공모사업과 연계한 국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kson@kwangju.co.kr

담양문화회관,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

군, 도시재생 인정사업 선정...83억 확보

담양군은 국토교통부가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 '2020년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를 포함해 83억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담양군은 지난해 담양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154억원, 농촌중심 활성화사업 150억원, 한전지중화사업 40억원에 이어 추가로 국비를 확보, 지역발전 에 활력을 더하게 됐다. 지난해 말 처음 도입된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생활SOC 등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개별 단위사업을

지원하는 국비 사업이다. 담양군은 현 문화회관 부지에 올해부터 2022년까지 문화분야 생활SOC를 공급하고, 문화자생 지원공간 조성, 모든 세대가 이용하는 광장 및 공연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통해 영유아부터 고령층까지 장애없이 이용 가능한 혁신문화공간을 조성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할 것”이라며 “추진 중인 담양읍 일반근린형 도시재생 사업과도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담양군이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한다. <담양군 제공>

돼지분뇨 액상비료 하천 유출

화순군, 축산업자 고발 방침

돼지분뇨를 가공해 만든 액상 비료가 하천에 유출돼 지자체가 조사에 나섰다. 22일 화순군에 따르면 군은 동면 화순천에 액상 비료를 방출한 혐의(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로 축산업자 A씨를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화순군은 지난 20일 동면 천덕마을 앞 화순천이 악취와 함께 갈색으로 오염됐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천덕마을 인근에 있는 A씨의 축사에서 보관하고 있던 액상비료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의 축사에서 하천으로 연결되는 하수관이 매설된 것을 발견했다. A씨는 전날 오후까지 유출된 액상비료 수거 작업을 진행했지만, 하천에 사는 물고기 30kg가량이 폐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매설된 하수관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며 “실수로 액상비료가 보관된 탱크 밸브를 제대로 잠그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A씨는 인근 주민들에게 사죄한 뒤 피해 보상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순군 관계자는 “정확한 유출량과 피해 규모, 유출 경위 등을 조사한 뒤 A씨를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

손해보험협회

딱 한잔 드셨습니까?

2019년 6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딱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되고 단속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래도 음주운전하시겠습니까?